

明治水曜日

年六月一日

告白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叙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村署河橋店金永佑多有狼狽支咲前債主未報中族親間本人姓名呈爲造於音支外債主暗圖計事狀綻露叫以若喪身呈逃躲支喰斯ニ無論內外國人支卫金永佑於普音典執用叶債給支면白失支

司이니母至見歎喜

金永佑告白

官報抄錄

●第三百五十一號(續)

○宮廷錄事○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臣金聲根謹奏鳳山前郡守洪世泳以該

郡各年公納愆滯事免官徵辦督捧之意另

具成冊既經上奏奉旨依奏未納夥多

故爲先免本官矣該所當公錢今既準納合

有叅恕特免懲戒何如謹具開錄伏候聖

裁三月丁日奉旨制曰可

○叙任及辭令○中樞院議官叙勅任官

四等從三品金奎熙▲陞敘判任官二等

度支部主事朴聖俊▲陞敘判任官三等

度支部主事尹明求(以上三月廿八日)△

任中樞院議官敘勅任官四等從二品閔

致鍾▲免懲戒前郡守洪世泳(以上三

月一日)△依願免本官安陵參奉李夏

儀、英陵參奉李昌夏、慶基殿參奉曹翰鍾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

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叙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叙任及辭令○陞正三品四品趙秉甲▲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閔泳殷▲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安得中

(以上光武六年十月九日)△聖敘判壬子

三等平理院主事李源國(三月一日)△

依願免本官掌禮院相禮李寅奎、弘文

館侍讀金裕弘、崇德殿參奉朴達鉉▲任

掌禮院相禮敘奏任官六等奎章閣直閣

增▲任慶基殿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任安陵參奉敘判任官八等李寬浩▲任

英陵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

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叙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叙任及辭令○陞正三品四品趙秉甲▲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安得中

(以上光武六年十月九日)△聖敘判壬子

三等平理院主事李源國(三月一日)△

依願免本官掌禮院相禮李寅奎、弘文

館侍讀金裕弘、崇德殿參奉朴達鉉▲任

掌禮院相禮敘奏任官六等奎章閣直閣

增▲任慶基殿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任安陵參奉敘判任官八等李寬浩▲任

英陵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

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敘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叙任及辭令○陞正三品四品趙秉甲▲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安得中

(以上光武六年十月九日)△聖敘判壬子

三等平理院主事李源國(三月一日)△

依願免本官掌禮院相禮李寅奎、弘文

館侍讀金裕弘、崇德殿參奉朴達鉉▲任

掌禮院相禮敘奏任官六等奎章閣直閣

增▲任慶基殿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任安陵參奉敘判任官八等李寬浩▲任

英陵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

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敘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叙任及辭令○陞正三品四品趙秉甲▲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安得中

(以上光武六年十月九日)△聖敘判壬子

三等平理院主事李源國(三月一日)△

依願免本官掌禮院相禮李寅奎、弘文

館侍讀金裕弘、崇德殿參奉朴達鉉▲任

掌禮院相禮敘奏任官六等奎章閣直閣

增▲任慶基殿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任安陵參奉敘判任官八等李寬浩▲任

英陵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

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敘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叙任及辭令○陞正三品四品趙秉甲▲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安得中

(以上光武六年十月九日)△聖敘判壬子

三等平理院主事李源國(三月一日)△

依願免本官掌禮院相禮李寅奎、弘文

館侍讀金裕弘、崇德殿參奉朴達鉉▲任

掌禮院相禮敘奏任官六等奎章閣直閣

增▲任慶基殿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任安陵參奉敘判任官八等李寬浩▲任

英陵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

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敘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叙任及辭令○陞正三品四品趙秉甲▲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安得中

(以上光武六年十月九日)△聖敘判壬子

三等平理院主事李源國(三月一日)△

依願免本官掌禮院相禮李寅奎、弘文

館侍讀金裕弘、崇德殿參奉朴達鉉▲任

掌禮院相禮敘奏任官六等奎章閣直閣

增▲任慶基殿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任安陵參奉敘判任官八等李寬浩▲任

英陵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

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敘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叙任及辭令○陞正三品四品趙秉甲▲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安得中

(以上光武六年十月九日)△聖敘判壬子

三等平理院主事李源國(三月一日)△

依願免本官掌禮院相禮李寅奎、弘文

館侍讀金裕弘、崇德殿參奉朴達鉉▲任

掌禮院相禮敘奏任官六等奎章閣直閣

增▲任慶基殿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任安陵參奉敘判任官八等李寬浩▲任

英陵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

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敘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叙任及辭令○陞正三品四品趙秉甲▲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安得中

(以上光武六年十月九日)△聖敘判壬子

三等平理院主事李源國(三月一日)△

依願免本官掌禮院相禮李寅奎、弘文

館侍讀金裕弘、崇德殿參奉朴達鉉▲任

掌禮院相禮敘奏任官六等奎章閣直閣

增▲任慶基殿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任安陵參奉敘判任官八等李寬浩▲任

英陵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

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敘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叙任及辭令○陞正三品四品趙秉甲▲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安得中

(以上光武六年十月九日)△聖敘判壬子

三等平理院主事李源國(三月一日)△

依願免本官掌禮院相禮李寅奎、弘文

館侍讀金裕弘、崇德殿參奉朴達鉉▲任

掌禮院相禮敘奏任官六等奎章閣直閣

增▲任慶基殿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任安陵參奉敘判任官八等李寬浩▲任

英陵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敘判任官八等朴時駿(以上三月三日)△

○叙任及辭令○陞正三品四品趙秉甲▲陞正三品五品洪惠周▲陞正三品六品安得中

(以上光武六年十月九日)△聖敘判壬子

三等平理院主事李源國(三月一日)△

依願免本官掌禮院相禮李寅奎、弘文

館侍讀金裕弘、崇德殿參奉朴達鉉▲任

掌禮院相禮敘奏任官六等奎章閣直閣

增▲任慶基殿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任安陵參奉敘判任官八等李寬浩▲任

英陵參奉敘判任官八等九品李潤

忠清北道觀察府主事趙鍾赫、平安北道

觀察府主事玄炳商▲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等侍講官金裕弘▲官侍

講院侍讀敘判任官四等六品朴齊璜▲任

法部事主李容成▲任忠清北道觀察府主

事敘判任官六等文淳模▲任平安北道

觀察府主事敘判任官六等金鍾九(以

五品李寅奎、任弘文館侍讀敘判任官七

等六品辛沫學▲任崇德殿參奉敘判

新日에 義州來容이 滿韓形勢를 說하니
船緣江下流沿岸貿易이 近年에 足히 繁榮
한正勃海各港과 安東縣大東溝之間에 海
運航次가 頻繁호지라 清與商民이 中央匯
匯港避하야 移租하는데 多々 義州市도
去年年이 盛大호야 且 清商民의 来往이
不絕호다. 更甚國境狀況을 說하니
俄兵의 鳳凰城에 駐屯하고者約五十名이
오安東縣에 駐屯하고者 約五十名인 데 俄兵
이 撤退치 아니하니는 韓清接續事務局이
是忘韓西國境狀勢이니라 想호直此形
勢가一變호면 韓西半世界公道를 當하야
知라. 韓兵을 江岸에 置호야 國을 鎮하니
國利民福이 아니로다.

韓北港灣記 (七)

群仙利源郡에 在하야 遙湖에서 約八

海里北邊이 好海圖의 所謂 利源泊地이니

端이 突出하니其一端即群仙이라 此岬角

은 人家上其濱岸에 繩列하니 約四百餘家

가 有하니 沿岸中에 繁盛호 区所가 되었

어 佐元山北關面交通支는 小輪船이 時々

寄航호는 處所라. 芽津群仙에서 五海里東邊의 鵠東

가 東方約一海里半一小岬角의 西面에 在

하니 不廉호나 十隻内外漁船이 容在

▲梨津 茶津에 三海里北邊에 在하니

▲南大川 露川郡에 在하야 梨津의 北東

岸에 三海里南面이며 背後에 高丘陵을 負하니

廣河內 河內이 航船碇泊에 宜호지라

▲其大川 南大川의 北東約五海里의 海

岸에 流注하니 河流이 河幅이 南大川보다

劣하니 河內이 航船碇泊에 宜호지라

時는 波浪이 荒起하니 困難호 盛하니라

▲梨湖 端川郡에 在하니 端川邑을 距하니

이 約六里며 北大川의 東邊一海里인 데 약

이 稔溫호지라 恒常輪船의 来往이 不妙호

여元山北闕間交通輪船이 寄港호야 飲料

水桶餘裕호다. 데라

▲宮中茶禮 日昨三十一日에 宮廷에

서 쟁孝殿別茶禮를 親行호 오셨는 듯

야 日人의 所設郵遞을 敷去하니 茶器과 茶葉

公使가 照復호가 들은 日人이 多住處에 只設

院事李冕相氏는 宮內府特進官을 任하고

俄艦사비야 자号를 搭乘호고 韓人京

호았다. 茶器와 金器이 一束이었다. 茶葉와

茶具氏가 云二十七日에 仁港에 入하고

郵遞원을 韓國郵遞事務에 小無相關이라

고 金器이 一束이었다. 茶葉와 金器이 一束이었다.

▲俄使訪外相 度潤接續電信에 關하야

국母와 謂를 當今未復호 핫스티白色이 可

미也. 茶葉와 金器이 一束이었다.

한국에서 船舶是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但이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散在하니라.

한국에서 船舶는 本이 東北北西南東風을 避하니
는 宜하고 人家五十餘家가 其沿岸에

<p

日本郵船株式會社
濱船仁川出帆廣告

芝罘太吾牛莊行
玄海丸

木浦釜山長崎門司神戶行
越後丸

正午時出帆

木浦釜山長崎門司神戶行
大連丸

午前九時出帆

釜山長崎門司神戶行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濱船出帆廣告

鎮南浦萬景岱平壤行
慶尚號

群山號

五洋丸

慶寶號

京畿丸

群山號

久保丸

本浦神戶大阪行

京浦丸

群山號

金龍河白告

濟南萬景岱行

慶尚北道青松金龍河子乘鑪索性

濟南萬景岱行

忽其父用其侵賁財而告之因

日後其父用其侵賁財而告之因

十二月十三日新聞雜誌總覽所

戶陰元日白健鋪氏家任置大笠洞第三十三統四

斯尼誰某拾得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宮廷錄第十一 詔曰秘書院丞申倅均
詣受香諸處奉審擇奸以來三月六日
③叙任及辭令 ○依願免本官 中樞院議
議官金允培 同梁奭煥 同金昌燁 同殷
在吉 同李錫周 同李技英 ▲任中樞院議
官敘奏任官六等 一正三品中誠模六品河
文奎六品崔基福 九品金寅範 同李應薰
九品姜海永 以上三月四日

○第二十四自辛丑年二月九日月曜

○宮廷錄事 ③ 詔曰 東宮年紀方屆三十
旬今年之慶有異於他年朕心尤庸嘉悅而
大小眾情之胥欣欣然抃躍宜其惟均不無
覃恩之舉朝官年九十人各加一資年三十
人各內下表歲一次士庶年九十人令內部
考籍亦加一資年三十人各賜絹一疋以示
朕廣惠之意 詔曰 東宮受賀時陪衛軍

欽奏任官六等 正三品其祿神力品崔明九品安器中九品李容和九品申哲會九品趙彌夏(以上三月五日)△陞從二品侍講院副詹事尹雨植△陞正三品 章禮院相禮權 金陞正三品 秘書院鄭柵寅哲(以上三月六日)

⑥ 第三千三百零六號(三月十日火曜)

○宮廷錄事(詔曰典守金演東所爲極爲無嚴禮配(三月八日)△議政府贊政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臣尹定求謹奏今日 東宮受賀時宜 稟日趨不尋常又果子之日請各以日禮萬物長安不善操飭之當該掌禮院卿金聲根以推考之典何如謹上 奏 三月六日奉 旨依奏△議政府贊政 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臣尹定求謹 奏 稟慶時禮式事務委員尹鎮佑減下何如謹上 奏

正月晦日福豐德推次票一片一万兩金遺失支外斯日誰某拾得支外丘休紙施寫已到得來甚多請携票核對領銀此佈
具舍齋洞居金福賢告白
忠清南道牙山郡守魚允文氏丹萬慶金額出莫錢一千兩支外一面名洞裡戶領補給支日隣邑所無之善政稱讚支日領聲號載路支外
本人幼堂叔元圭字聖邦이가惜舊支外湯敗家產支外沒京鄉支外付同雜類支外賣支外三峯而外支外龍仁技內面首已爲放內外國人聞見欺後悔叱而叱
龍仁杜陵里金在應告白

◎荷物搭載者限出口前一日事	元山紹	丸洋高	九丸用後城京	群山本浦馬山釜山馬國神戶大坂行頓時起
⑩乘船賣賣者出口一時刻前者	美金白銀出港元山	四月十四日入港 四月二十日五時出航	四月二日入港 四月四日中午起航	四月九日入港 四月十五日出航
和船主爲港元山間貨客釜山玉安	日本製造四月四日出港元山	四月二十日正午出航	四月二日正午出航	四月九日入港
和船主爲港元山間貨客釜山玉安	日本製造四月四日出港元山	四月二十日正午出航	四月二日正午出航	四月九日入港

This image is a scan of a very dark, overexposed photograph. At the top, there is a thin, bright horizontal band. Below this, the image is mostly black and appears to be a close-up of a textured surface, possibly a wall or a piece of fabric.

官報抄錄
第三千四百五十二號(三月六日金曜)
○叙任及辭令
○依願免本官 中樞院議官權宗述 同鄭端誠 同金縣珍 同元光浩 同吳學昇 同韓挺錫 同劉明俊
任中樞院議官敘奏任官六等 正三品李枝英 同朴永祐 同金聲杓 同李泰會 六品李世熙 同金河奎 同殷迎臣 (以上三月三日) 公難任掌禮院掌禮 秘書院丞
申佐均 給三級俸 平理院判事采寅會
(以上三月四日)

兵乾糧餉▲詔曰東宮受賀時禮貌官副
詹事相禮官鑑官並加資▲詔曰宣醞賜饌時兼掌禮祕書丞半熟馬一匹賜給▲詔曰
東宮受賀及宣醞賜饌時春桂坊以下別單書入▲詔曰東宮受賀及宣醞賜饌時各
差備以下別單書入▲詔曰宣醞賜饌時典
膳司教坊司尚衣司提調以下別單書入▲
詔曰今番賞典中一人雖兼數事毋得疊授
(以上三月六日)

黃海道安岳郡大臨坊塗隅居全昌坊外
義赤立碑性又淨淨演武碑核難之類皇
往來印是奇驕取錢財支用日僞賣田土
庶皆不無少呀玆印廣告支日京畿間內
外國人見狀勿交涉且日京畿間內
長連郡樸利全鳳周告白

千代丸	大阪商船株式會社

官報

新嘉坡

明治三十六年四月三日 金曜日
廣島市立圖書館蔵
西田八十郎著
『支那の歴史』

村署河橋居金永佑多有狼狽支呀前傳
音未報中族祖祖本大姓名^王爲過於遺
支呀外債^音暗圖財事狀極露^音以至其妻
身^音至逃聽^音子^音之^音無論内外同人^音大^音
金永佑於首善典故^音出^音不^音借給^音支道^音自^音莫
티이니母至見時喜
金永佑告白

上卷

廣
雅

西來人傳說聞悉平壤觀察司同拿
辦事處總兵官亂捕支那兵丁等事
意料吳喜由支那堂內年少老嫗引賊
被捉打死。投書人平安北道富川南
畠鳳洞。朴金明告曰。
黃海道安岳郡大臨坊松隅居全昌坊
素赤立�性又淨浪支那族類之類毫縛
往來以是奇驕取錢財支那片爲賣田主
虛骨不無支那姓號廣告莫上京鄉間
外國人見欺勿支那長連櫓稱全鳳周告曰
陰曆二月登江南彩票
準期二十六日開會
湖北彩票準期廿八日開會諸貴客欲奪
彩者請速來購正月正月份榜日已到得彩
者甚多携票核對領銀是望
漢城美洞德興
正月晦日福豐德推彩票一片一萬兩金清
失支那誰某拾得支那休紙施恩
及舍齋洞居金福賢告白
忠淸南道牙山郡守魚允文氏推滿原事期
出獎錢一千兩支那十一面各洞戶角
補給財物隣邑所無之善政發種譜支那頌
聲而載路支那
本人的堂叔元圭字聖邦。其性質
敗家產支那出沒京鄉支那付同雜類支那
資本三峯而資出沒。龍仁技內而資已爲放
内外國人聞見欺後悔而以身
龍仁杜陵里金在應告白

日本郵船株式會社

상동지전연초광

漢書卷之三十一

芝罘太古牛莊行
立海丸
四月九日
午前九時到候

木浦釜山長崎門司神戸行
越後

卷之三

大連丸

笠山長嶽門司神戸行
西月二十日
一年後四時出世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廣告

月日午後 港内
上空飛行
日後晴空
帆

山朝
五洋丸

山本浦行
受領丸
明
日午前入港

月 日午後四時出帆

月 日午前大港
日午後四時出港

久保 錦 陽 原 月 日 午 後 四 時 出 帆

仁川港
堤田酒店
(電話二十七番)

慶尙北道壽松金龍洞의子秉鎬가索性이
音浪雜技의家産을蕩敗하고踪跡이因
急々이勿論内外國人을 省見欺負를 給하야
日後의其父母을 侵責치마 올소서

漢 喜着輸山如番今件物^甚開下

This block contains a vertical column of Chinese characters from a historical document. At the top, there are several large characters, likely the title or a section heading. Below them, the text continues in a standard vertical format, with characters arranged in horizontal rows from right to left.

경부철도 츠위기타 유증권 매역

本人에 道遜金元培字順八이자 豊基
本是敗子至京艸出沒于濟州
亂類妄管同黨如干門齊等僨言
叛玄武內外國人見欺後悔
錢財間忽與濟支坐充
楊州晝夜而悲淒居前洞果金潤量一自告

一
新報
錢價
期票

年條一元七十錢

廣雅

同上

京城南署長洞號外三號地
發行所 漢城新

官
印
抄
錄

第二手。呂五十六號。
○議政府贊政度支府大臣
兼住掌禮院卿臣金聲根謹奏。養老宴與
內外。進封拜會以來。陰曆五月之後。更爲

老宴典外。進宴陰居。五月二十五日內
進宴同月二十七日爲吉。云以此日定行平
敢奏三月廿日平。旨以此日定行公議政
府贊政宮內府太師臨時署理議政府贊政
臣尹定求謹奏。稱慶時禮式事務委員
李慶榮榮減下例如謹上。奏三月八日奉
旨依奏。乞引文飭輔導堂上。臣南廷暫
謹。奏宮內府所奏出所應行事目中。
閣內。閣外各省廳所藏書籍隨所考移牒
取閱。私家所藏書籍以出所信憑借閱再得
有阻擋事無已。奏下矣。祀草役行將聞
始一依奉。且施行便舉終何如。謹上奏。
三月八日奉旨錄奏。宮內府特進官金
相旨。省臣。臣。批。奏。公議。之。勿。辭。職。疏。
曉秀辭職疏。批。省疏。公議。之。勿。辭。職。疏。
之。任。佐。施。金。宮。內。府。特。進。官。李。曉。秀。辭。職。疏。據旨。省
議。官。河。文。奎。同。崔。正。福。同。金。相。執。同。李。
蘆。同。姜。雨。水。金。任。中。傳。陞。議。官。臧。奏。任。

官六等正三品金贍奏，九品文弘經、同十
致國、同李明世、同宋永基以十月六日
△依願免本官 穆書院丞成健鑄任侍郎
講院副詹事敘奏任官五等。尙書司員中
憲均任尙衣司長敘奏任官五等。驛書
院丞金永冀任秘書院丞敘奏任官六等
正三品沈啓澤任秘書院丞敘奏任官六

○第三千四百五十六號（三月十二日未晦）
○宮廷錄事 ○詔曰命從二品金在定爲
中樞院議官（三月九日）△詔曰秘書院丞
申佐均馳詣受一查所奉審賴好以來（三
月十一日）

○叙任及辭令 ○任中樞院議官報勅任
官四等 徒一品金在定（以上三月十
日）

卷第二千四百五十九號（三月十七日未晦）

○宮廷錄事 ○詔曰秘書院丞申佐均馳
詣 宗廟 永寧殿 景聖殿不審請好以
來（以上三月十七日）△詔改封資政 員內直
大臣臨時署理計政局政事尹達求謹

奏 先農壇祭吏官當爲監察面櫛具院選
李載乾李義國有耳病中密爾在外許萬輔
入直無進去之人以大祝弘文館侍讀李法
學恤差分秘書郎使之監察何如謹上奏

三月十一日奉旨依奏

西漢人對唐說參聞含平和韓宗州司金
官署徵稽委吳王晉北一時派遺支附無
誰為納民亂捕李中東察司接續古有秦
道州是吾事王室中事多難引廢代
魏子立之授書入平安北道宣州貴
顧奎明告白

村翼河橋店金永佑外多有狼狽支那商賈
至本邦中居間本太經名。子曰。吾從周。
蓋外債多暗圖耳目。當狀經久。以不計
身。一舉逃躲。是望天口無憑。此性如人之
全水首於急晝。與利口值給。皆有失主。
則曰。母至兒財喜。

大藏前株主
澤船仁用
本浦釜田原長崎馬頭神社
多
平
代
九
四月七日入港
四月八日出港
四月九日無事
四月十日入港
四月十一日出港

本浦翁出馬關神音大坂行	四月九日大坂 四月二十六日 四月廿六日 四月廿八日	西生上野 西生上野 西生上野 西生上野

大坂商船
元治元年正月
出港元山船頭
荷物提揚者出日時刻
○○○

卷之三

三

▲漢城諸公이平生에盡忠호이極深호야
率이外難을受하거늘여외호는다大勝利
하여列強과皆避易호。大國은皆恐怖호
는지라

電氣鐵道事務委員長 이오司稅局長 李健榮氏
榮氏外侍從李懋榮氏外記事員咸仁鵠氏
外伊泰興氏之電氣鐵道事務委員長
任玄燮鐵道諸般事務相關列玄燮이 더위
李懋榮氏被捉事件

此事作일前相을 得知正
호진단幾日臺經하여 약속 갖고 다 말李
東氏가方今日夜賓客를受한는 맞으니
짜리지 바친더라

卷之三

數年前韓當政客이今則去莫高大帥人
遞吳子李根漢季容翊威公이位는人
臣의榮에極히卫豐은常人이니에出하야
天下고임의這般豪傑이輩昌호의國家千
年大業을活日이有矣리

▲英確의多毫則那이亂世의豪傑이輩出
臺則天下一亂이니今大空頭絕後盛事
吾眼中에在하리一大事帝陛下用오사夙
夜軫念李吳서는此時의獄事이忽焉生
亥汗疾風의獄事이已始이果是英確等
閑中倦闌의餕業이다我難病中의一般小

海西敎徒事件以外別는內治가 놀고 있던 시기로, 1904년 5월 2일에 일어난 李基培(이기배) 살해 사건은 그의 아버지 李基成(이기성)과 그의 형 張基運(장기운)이 주동자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이는 韓國獨立運動(한국독립운동)의 전초전으로 여겨졌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에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군대 간의 충돌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로 1905년 1월 25일에는 漢城(현 서울)에서 대규모의 민족항쟁인 三一運動(3·1 운동)이 발발하였다.

中。○豫外大臣等諸般儀節兵相議中
拉다라
拉
會開期 日本帝國議會解教後
擇舉官畢查故呈 天皇陛下仰承以來
月八日准備國議會召集高麗二十二
日開會事引起命호凭다하리라
日員交遞 外交官補古谷重綱氏
事官補出淵勝次氏乞京城在勤臺設立
正領事官補金本英作氏乞釜山領事館
勤務被命호간다하리라
保護權有無 東清鐵道保護權件右

敵憑
前隊
日安
隊刀
有文
内玉
外轉
彼夫
走ま

▲ 詮來是其所謂獄事也。人抵訴僞的中傷
的。乃至君子。以至耻事。十裡漢城豪傑。以
山來至太平。而餉。是。以至。而這弄戲。是。
爲玄。而。大。赦。恩。詔。是。玄。而。十。日。未。數。日。而。
獄。爭。玄。而。大。而。一。日。而。一。獄。而。有。玄。而。廢。
임의 獄人이 有玄。而。 墓德을 汚。玄。而。者。一
獄爭玄而大。而。一。日。而。一。獄。而。有。玄。而。廢。

當初에 李氏 가入 一關 古時에 手袋 내에 穴砲外彈丸 口爆發藥斗 在 赫스프로 由 露가 되 且退 關時에 被 提아 되 었 乎 赫스프로 法官파 法宮 一說 赫斯프로 別論 例人 치요法官파 法宮 命令이 아니면 猥濫히 他人之 手袋를 聞하 華理가 萬無玄立 先是 時에 癸卯 銃彈丸 水澆手 가문 삼事件을 告變支吳가로 醫術院判이 言古氏가 晉을 爲本生置人 被正失失其道 手帶善害 擄호 엔는 터 山陽 鍾彈丸 三四 鍾弹丸 이自在 乎 엿스니是 故로 被 提아 되 級斗

則俄國은 福州艦兵의 約言履行할지니
吳吉으로 聲兵이 誉名下에 清州各團
散在 東軍隊를 東清鐵道停車場附近에
中支川에 앉는다. 俄國은 此停車場附近에
軍隊集合을 防止鐵道守備目的의 而
該軍隊是 守備本圖爲主야. 俄國의 云
을 韓國害을 가진다. 條約으로 既得호權利
를 訂立하니 本圖는 本圖에 依存하니
支川 清國은勿論이니 外國이 敢이 吳議
呂支川 三國有時無事이니 三形容이 有時無事이니
發

○俄國航海保護金
俄國政府에
由白令海諸港間對海陸威勢將
個年間者十六萬兩式保護金會支給
並決定支給日數
○西北鐵路復建再始
上年에 中書
英華京義鐵道盡事已至於今日及
時行之者甚多其一為中國人所
事甚大矣
○長江輪船開辦事
長江輪船開辦事

東海後三日發起始到

禁中戒嚴 李基重氏子襲內閣爆發藥
引搜出以後雖疑某官宮中細膩濃玄狀手
袋已藏禁中以次承候官以外別入侍御

여기서 李根澤 와 李裕寅 두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李東氏가 그를 李根澤로 임명한 때는 그가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에는 그의 이름은 李根澤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가 30대 초반에 李裕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의 이름이 李裕寅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李裕寅이라는 이름은 그가 30대 초반에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의 이름으로广く 알려졌다.

審者之則在於此。此條約以單方之處
約而設立實狀滿國之種種事宜而惟
一某國之專目固公然而清國政府毫無
以其有無是實間毫時而置親王之尊號

螭佳人郎氏升籍田浦嗣新地置之客
屋觀藏書幾立。該氏好識善研習易
事。考之。對曰。該地多趙。古有之。且上
買田。忘意外之事。及虛傳之說。而時主

官
等
地
實
錄

④平壤電氣架設 通信院에 평壤전기
電話直設 通話直設 흔다니라

당상의 분부로 실도호 길정을 종아리 쳐서
증집을 엿더니 그 기성이 어더가셔 호소하고
여던지 훈김이 와서 그 종아리 칠쓰며 짧았던
데 하인을 잡아 갖수죽 당상의 널에 하인이

啓者小號發出之錢票經有數年積石居用以至各市場坊巷濫用今有無耻之徒持我號三十五兩之真鈔以至一千兩票私在市場坊巷兌換騙人良心盡喪累人害物甚為贍恨但小號發出之票二十五兩一百兩五百兩一千兩分盛五等各票紙色不同號數亦有順次易於分辨每票二十五兩鈔改造不能鑑如諸君細看容易分出三等拿將亦是三十五兩之號數及背之白印鈔改造不能鑑如諸君細看容易分出三等拿將小號發出之票開列於后如據數萬千等紙色不對合背之白印糊濕空濶楚千萬不可收用免至受累字謹慎辨察焉

廣

石版 請發售
今回 列盤籍에 서山水斗人 物斗其外 일奉
大坂 東京各地에 서著名�景致을 調 索
上刷出 売石版 諸를 賤價로 發賣하니
方僕君子川서 多購著 俗望을 爲
泥覗 石川辰次郎

西署盤石坊桃洞契草家二百三十七統四
亥外同署同坊藍井洞草家二百三十四統四
十二支文券毫淡失之變不見誰莫拾遺
對至休紙施石喜金炳華謹告
浦東里鄰載燮端名字鑒烟時呈改名
已知舊聞照亮喜本人鄰烟時告白

昌原明谷居僉達五處莫文輝萬試千伍百兩雅說於首叫手稟呈昌原縣令是日早邑某人來至拾得支叶兒休紙施行等薦山金若居朴主復廣告

본인이나 북서 유화 백성의 공제 상황을 알았지만
위서는 그를 일상화해서 유화 백제로 통제되었다.
선 삼국 중 구호 유진석의 대령자로 군인 일정에서
조선 말 방사와 동성과 같은 유파 유파 구호로 아울러
남성도의 거리임과 일상화되는 소속 등으로
동정으로 통한 유파가 진일각 학사장과 소의사
장 유명 텐금 흥원 대나무 친구 유파 일생의
우연히 그 문필을 통해 하셨던 글입니다.

사계동의 정원서 202

讀書記

卷之三

大坂博覽會觀光指南



年六月三十日
午後三時半開幕式
同文忠植、同趙世元、同盧秉鼎、同宋性
老、同徐相圭、同吳相著、同劉益、同
金鐵北道觀察使李允在（以上三月十五
日）
同羅錫注（以上三月十九日）

官叙奏任官六等

正三品庶乘主六品文

官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司

光武七年四月一日

日本邦裕朱武會

海西教案

原告歎山 郭希浩

向汝矣呈狀內에昨年八月分辦本郡銀波

敎會長張士浩가多率敎徒侵入矣家

玄洋矣身是提去堅因于銀波店支立矣身

之家產什物을搜探支야矣洞及首處에任

置後田庄文券을爲探持去玄洞渠矣晉

內汝矣妻外叔黃哥가敎堂什物을益去則

送矣身이 온다搜去什物與田券을遷

延不給故乞呼訴于神父이 온즉張士浩가

謂以空手莫有取去之心乎아無數言實이

得黃哥嚴徵之日에矣身處全無口招則放

送矣身이 온다搜去什物與田券을遷

延不給故乞呼訴于神父이 온즉張士浩가

謂以空手莫有取去之心乎아無數言實이

得黃哥嚴徵之日에矣身處全無口招則放

送矣身이 온다搜去什物與田券을遷

延不給故乞呼訴于神父이 온즉張士浩가

謂以空手莫有取去之心乎아無數言實이

得黃哥嚴徵之日에矣身處全無口招則放

送矣身이 온다搜去什物與田券을遷

延不給故乞呼訴于神父이 온즉張士浩가

謂以空手莫有取去之心乎아無數言實이

金等直招敎事

汝矣於黃哥偷竊之事에必有知情之迹

檢推給等情印마

浩士正六月二十六日夜半에張士

浩가多率敎徒侵入矣家

本郡玄洋矣身

提去堅因玄洋矣身

是提去堅因玄洋矣身

特爲嚴

本郡玄洋矣身

承令飭到付이 온다

日嘗一浴。月與羣狗爭浴。日怒曰：「汝奚爲者也？」羣狗笑曰：「吾家舍與牝牛一隻。牽去。且大鼎一座。

으로 분비되었는지 제일 조심만 주와제이

이라 엊던 사람은 한 번 길에 돈이 몇 만냥이

本人等與七寸桂陽性本情荒。使其子
毛夏生入於田林該姓。將同外國人而稱田

外價玄立屢次書到悖說威脅으로欲奪錢財日本人等이一不答書立與之相對立無論內外國人玄立以此照要可

海南尹載夏敷夏
張羅直參

土木建築業開拓者集

今次亞木所用方法甚屬簡單而有效。首先將工務事業擴當到事之頭小量地發售材料，如釘釘等項，再逐步擴大。

役費是省減支呀。凡事量實說，無空頭的說。有志僉君子，亡來讓。文引書子舊，伏化。

四
鐵道

水道是用灌漑

第
四
章
各
樣
家
舍
公
廄

右計外各項測量

卷之三

全羅北道金匱郡守安學桂가

正轉祿經督叫轉祿。聖朝舊例公卿大臣
交賄民吏感服遠近。至願留狀書內部外

等諱호에 단이從便通沿호는 단을
처분이 겹쳐다 치시고 自退호에 다 떠나

본인니북서술화방장의궁체설증현호바
와석의가권현장북서술화방체부동체교

심상동구호부전역의세령자들은앞장에
죽임당망사직통령령광복으로신구국민총회
를개최하였다. 1945년8월15일, 비상총회

당신도의 기록을 기울기 때마시는 듯한
동침호당인 옥장권 일장합사장 꽈송이 살피

그 물질과 돈 살천여랑을 봉제한 여사나는
구던지 그 물질을 좁특히 셋가득 헤치지 않으면

卷之三

本人幼弟潤錫以或稱禹錫或至淳源性
懶好學見誘之多有狼瘝立無告遠近
聞之

이오니内外國人中或有借給之弊이오
見失호울터이오니照亮勿欺望喜

白
陰曆二月
十六日
梨峴典當舖韓盛錫告白

官報抄錄

兼任西北鐵道局總裁從二品李圭恒爲西北鐵道局監督（以上二月二十二日）△洪綏提調金永穆辟職疏

大利有

年六月十四日
晴

敘勅任官三等 宮內府特進官李錦翼▲
任水輪院查計課長敘奏任官六等 水輪
院技師申冕休▲任水輪院技師敘奏任官
六等 水輪院主事金恩久▲命定內府特
進官敘勅任官一等 西北鐵道局總裁趙
秉式▲兼任西北鐵道局總裁 內藏院卿
李容翊▲命西北鐵道局監督敘勅任官四
等 從二品李圭桓▲任西北鐵道局技師
敘奏任官六等 西北鐵道局主事崔翼軫

御文庫
卷之三

大阪商會株式會社
濱船田川出島廣告

須磨城

須臾曠
時

卷之三

卷之三

元
一

卷一百一十一

香
一細川松之助

日本國皇室御用之花木等之栽培。

別告 本社 計署欄中에伺 허언이 半曉
秦尉金明董氏의 비판을 넘어서 엄숙히
혈연우체통으로 안기사라도 차져 가오

大阪府

◎ 領德紀念盛行 湖成皇后를 感慕하야
妃를 畏敬하여 領德紀念碑를 經營하니라
奔走하여 大運動을 하는 자 있다더라

◎ 江北來信 北方으로 품차 오신 남반의
제 말술를 놓아 드를 죽녕 면구 관찰파신
관찰하여 연장자 군수령들이 모임 등 하인
정을 선포하여 민심을 유속하고로 치어 강
북 인민 던재지라도 爲 터화를 치각하고
일 애조원이 본국에 호자하고 본국에 응역
할 기를 드리도니 주기 때리사가 나려온 후
로는 청학의 무소부지 라모다 이 산하고 혹
남은 자도 부지 할도 라가 어렵더니 다학이 판
찰사와 각 군수들이 귀여구 호자 애남운비
림으로 관리사가 관찰공수의 폐도 상득자
목하고 민간의 적위 어국다하고로 형세가
날노와로 위자며 간송이 날노한로 호야 하
디방에서 헤호시령이 되자 애닐뿐더러 좌
약을 발령하고 길이 있는 시락자 칭항인이 자
리의 일의 가 아니요 모처분부 시침이라 하
야 무좌령을 놓고 결명을 한다더라

◎ 壓刻勒票 지자인 남대문 관찰에 사도
암이 통과하고 끝아 되구서로 부(老父)를
암고 어터로 도망하고 면서 명을 보조하고 호
거 늘한사람이나 나다가 그 연기를 무른 데
안한이 허락을 하다는 강성도 풍산군도 천
고 노인과 함께 오다가 말로 물은 데나는
사는 짐수여(金水府) 아봉리 성주(星
州) 군기호(忠州)와(鄭周璣)의 바리회
으로 축을 경우에 일으려 놓았던 한사람이
고 노인과 함께 오다가 말로 물은 데나는
령 산군도 천자는 짐일한(金日萬) 아온이
저노인파(足) 세명(稚)과의 친애용(愛用)
당호(當號)

라 그 조세호 소설을 무른 즉 더 팔자나 간 담

▲ 郡守莅臨

마사 군성으로 망비 곽경호

本人等의 7대(桂勳)이桂本(桂本) 慎荒(慎荒)에使其子

야 돈길하나 잡아 가지 않고 원호(原虎)나 도둑하고
있다니 그 돈이 별돈이 아니라 본군의 상남
돈이라 이 마감을 엿지 않고 이 삼년 층봉만
간 거슬은 일동 소공자요 종참이 분명하고 온니
그 후명가변리를 탈하고 정소사지하여 제

되 후습경이나 흑방정이나 다리고 와서 히
가락송하고도 흥취를 풀고 흥취를 풀고 우
되 후습경이나 흑방정이나 다리고 와서 히

작을 더니 장년심이 월에 일으려서는 철
약을 하더니 장년심이 월에 일으려서는 철
되 후습경이나 흑방정이나 다리고 와서 히
가락송하고도 흥취를 풀고 흥취를 풀고 우

성주 군수니끼의 상남 층봉전이라 흥하고 우
리들을 경무청에 잡아 가두더니 경무청에
서는 무죄함을 분간하고 방송하고 거늘자
는 들품금을 날아 성종 남총아 모데서 명가
장령 오록 명을 다리고 우리들을 경박하고
여도 헛되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면 대전해 암스미 천지 일시로 어둔 달화가
자루를 들면 관찰소가 한다리를 드리미니
죽우자 아니 하여 소리만 흔들고 드리오
봉이 이리우니 저조가 있순들요 수풀을 할

去十三日에 第七十三號로 再次

軍艦來着 新造軍艦揚武號가去八日

論支지吳亨리로다

第三種郵便物可認

京城學堂卒業證書授與式 同學堂에

第五回卒業修業授與式은豫定파 如支

再昨十三日午後三時에執行支引는되最

先學堂長渡瀨氏가起支一應禮式을行

亨고다음普通科卒業者四名과專門科

卒業者五名과各級卒業者의비順次로卒

業修業證書를授與支고 그다

及精勤者에對支야賞品을授與支고 그다

음에堂長이卒業生을對支야告辭를演說

支고그다음에는學部大臣閔泳韶氏의訓

戒의演說이있고 그다음에는日本林公使

가生徒에對支야誠論의演說도做了하고

各卒業生의總代와答辭와堂長의禮式으

로結于在支에別室에서日賓을對支야茶

宴始體應支고 過兩小時同五時리라同

自서賓에韓國의서同學部大臣閔泳韶氏의訓

와全協辦韓麟鎭氏與外部協辦李重夏氏

과學部學務局長張世基氏와學部偏緝

局長李圭相氏와水務局長李鍾泰氏와

及部員幾人와 오淸國에서 25許公使와吳

領事島日本公使館에서는林公使와蘇原

書記官과通譯官이오領事館에서는增

大領事와館員에齊藤提理肥田憲兵隊長파

駐劄隊將校와加藤顧問官과其他居留民

와重立파新聞記者와龍山居留民과重立

等百餘名이라盛大卒業式으로開支

영디마

④兼官免任 13日에秘書院丞洪性友

氏室依願免兼任太醫院少卿이 되고秘書

院丞金德漢氏가兼任支리 되었더라

호기승據支니 14의平均乘車客은 2千

七百九十九人이었다더라

⑤兩師續約 漢語學校教師胡文輝氏와

法語教師馬太乙氏와補聘年限이滿意하

豆學部側서다사續約를次로合而契約하

기로酌定이 되였다더라

●頌德紀念續聞 皇貴妃嚴氏의 頌德紀

念碑를建立하고運動支는者는隨斷에

處高超時適宜之目的를抱支야其尊榮之

義是明成皇后에擬將列支고 자궁이라

其事務長丘某과大官人을指點하는中

以憂爲慶 텐연두는眞贊라가譽할

大官人丘謙爭先支는 모양이라 誓

●以憂爲慶 텐연두는眞贊라가譽할

大官人丘謙爭先支는 모양이라 誓

有幾日期日은確定치吳亨리더라

로視支미 有支 명足하 無支行支

其事務長丘某과大官人을指點하는中

以憂爲慶 텐연두는眞贊라가譽할

大官人丘謙爭先支는 모양이라 誓

●以憂爲慶 텐연두는眞贊라가譽할

有幾日期日은確定치吳亨리더라

로視支미 有支 명足하 無支行支

其事務長丘某과大官人을指點하는中

以憂爲慶 텐연두는眞贊라가譽할

大官人丘謙爭先支는 모양이라 誓

●以憂爲慶 텐연두는眞贊라가譽할

度尚北道青松金龍酒糉子乘鑄片索性
浮浪雜技支呀家產毫蕩散支立踪跡呀因
忽叟可忽論內奸國人莫見欺價給支
日後外其父母立伺責刻呀名士

才准金田八山北櫻行
五月九日四月廿二午後四時出帆

鎮南浦萬景岱行
癸未仲月
金歷四月
三月
日 在後四時出帆

木浦馬關大阪行	本浦馬關大阪行
五洋丸	五洋丸
四月	四月
日午後四時出帆	日午後四時出帆
鎮南浦保山行	鎮南浦保山行
四月	四月
日午後四時出帆	日午後四時出帆
群山木浦行	群山木浦行
四月	四月
日午後四時出帆	日午後四時出帆

釜山長崎門司神戸行
支海丸 (四月二十日
午後四時出帆)
芝罘大連丸 (四月二十一日
午前九時出帆)
日本郵船株會社仁川支店

木浦釜山長崎門司神戸行
五月四日
午后三時出帆

日本郵船株式會社
汽船仁川出帆廣告

啓者小號發出之票，並非外埠流通。每票五兩，市場坊巷通行，今有無此之徒，將我號三十五兩之票，鑄造成一千兩票，和小票五票，市場坊巷通行，今有人售物，甚為痛恨。但小號發出之票，二十五兩五十兩一百兩五百兩一千兩分爲五等，各等紙色不同，號數亦有層次，易於分別。今將二十五兩偽改造一千兩原是二十五兩之紙色，亦是三十五兩之號數及背之白印，偽改造不能玲瓏，如諸君細看，容易分出真偽。今將小號發出之票開列於后，如號數混亂，各等紙色不對合，背之白印糊混不清楚，千萬不可收用，至受累望諸君謹慎細察焉。

泰
廣
告

人書卷之三

喜着榆山如都今件物查開下



경부철도 쥬진기타 유증전매

좌지
등등

卷之三

本人예從孫金元培字順八이강影居屢南
農基리니本是敗子呈京卿出沒于海濱浪
亂類是符同支叶如干出者皆謂遺實五
列支오너內外國人見欺終日呼叶자立
錢財間切勿舉論支서음
楊州晝夜面虎洞居前謂果全浦云
自告

一
三
年
條
一
元
七
十
錢

外玉休經施行喜
南署詩佳自南與告白

年幼識淺言無賴
盡虛心得償人見喜
立後悔知叶半署貫
年洞李聖國告白

官銀抄

基榮△解吉州監理
任城津監理敘奏任官二等，正三品沈厚
躉（以上三月二十六日）△依頃免官

卷之三

年六十三治明
日八十月四
日曜士

品沈雲澤（以上二月二十八日）△命宮內

金龍河白告

石浦因察祭先祖留張書到官上改天朝之內列卡人見以委立後轉大叩申署貢午洞李聖國告白

卷之三

漢書

日本料理會場式會席
瀛船仁川號觀慶生

長壽門

壬午年正月廿二日
午後四時出學

卷之三

閏四月二十三日
平海九歸淮上

卷之三

卷之三

卷之三

卷之三

本浦關大阪行

四月一日，余在安陽，時指揮

江南浦保山行
洋

四月
廿二日後四時雨

卷之三

十七日午後入港
十八日午前四時出發

慶信號

行
月
日
右
時出轉

卷之三

羅一酒店

陰曆元日廿一日
戶白健鏞氏家任置
여스니誰某拾得支

大笠洞第二十三統四
門子兩標臺遺失
對王休紙施行
南署詩住白南興告白

鳳凰城俄兵駐屯

前日義州來報，據奏則俄兵五百名已現今鳳凰城所駐屯。又據奏，即日前北京電報，接電則俄兵約一千三百名，到鳳凰城，而駐守。

該地에 集屯 했다.

此多大兵力。

是韓境對岸市에 駐屯 。

我儕已以爲本月八日是俄兵撤退，則

故至奉天以南兵力이 驚還，是遂次에 賦

屯 。

惟旨意背戾，

彼又其被遣 。

策니 만일俄가 此軍隊是屯集波羅洲 。

今浦州鐵道上橫斷 。

各市의 商業이

漸盛 。

是時에 強國의 兵이 隣境에屯 在 。

時 。

而陽生의 行動이나 天下 。

其有 望 。

列強의 抗議是招 。

韓國人은俄人의 扰用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屯 。

로 만일 과속이라도 혼동만이면 여득천
금이라, 하등 사회들은 더구나 아사를 면

하는 계적이 있어서 소회를 위로 견디는 차
람이 만호나이는 장정들에 일어오도 악은

오도 차도 못하고 노방에서 살음 흘리고 균심을 아
상은 마련해야 참아 볼수 있다더니

④韓人強盜逮逋
자난들이 살칠일에

▲ 祖國의 氣趣 있는當世隱士는, 三四竿
流水上急且淺者, 潮去潮來에 飛影은 靜
者携弓垂綸與家人歸卜라, 日落金浦山
童肩高而臨流釣鮮魚上아라, 大者食小
邪氣村翁卒道遙遠間樂하니, 韶光春景

이 낚지 쳐 활국가니 편히 고사하니 무사
해가 높았자요 모호침하여 망명되었노위
저 놓을 바 엊자인도니 악일로리요 주안

이 적다 홀슈업는지 라이재조정이 하이중
고국이나 가쓰사 허야정과 가일루에 멋지
못하고 위망이 복전에 풍기워 오기 흥공사

한국에 본래 있던 관리들이나 그들이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花飛女如
雪散이라. 宮人은不解惜호고 擦除只知
淸其境이라. 落花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祖國의 氣趣 있는當世隱士는, 三四竿
流水上急且淺者, 潮去潮來에 飛影은 靜
者携弓垂綸與家人歸卜라, 日落金浦山
童肩高而臨流釣鮮魚上아라, 大者食小
邪氣村翁卒道遙遠間樂하니, 韶光春景

이 낚지 쳐 활국가니 편히 고사하니 무사
해가 높았자요 모호침하여 망명되었노위
저 놓을 바 엊자인도니 악일로리요 주안

이 적다 홀슈업는지 라이재조정이 하이중
고국이나 가쓰사 허야정과 가일루에 멋지
못하고 위망이 복전에 풍기워 오기 흥공사

한국에 본래 있던 관리들이나 그들이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花飛女如
雪散이라. 宮人은不解惜호고 擦除只知
淸其境이라. 落花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花飛女如
雪散이라. 宮人은不解惜호고 擦除只知
淸其境이라. 落花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花飛女如
雪散이라. 宮人은不解惜호고 擦除只知
淸其境이라.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 航影水聲記 (二)
中타니, 雨一過風一過支나 落화를 踏르고
春酣을 觀호

마는 福宮昌德宮이 수其好時節이라.

號一千一百二十一第一期報新
城

漢自八月四年七武光

本人에 從孫金元培字順八이 가 移居慶南
豐基리니 本是敗子로 京卿出沒로 而浮浪嫌尙北道青松金龍河斗子秉鵠升
亂類를 符同호야 如干田省을 騞造僞資로 浮浪雜技호야 家產을 荡敗로 立跡跡이 因
外國人은 見欺後悔치며 시고 忽호이勿論 内外國人호고 見欺債宿호야
錢財間切勿舉論호서음 日後와 其父母호 부侵責자마 목소지
楊州岳夜而虎洞居前司果金潤植 自告
金龍洞自告



啓者小城發出之錢票經有數年諸君信川以至各重場坊巷流通今有無耻之徒將我號子五兩之票僞改造三千兩票私市市場坊巷兌換騙人良心盡喪累人害物此爲痛恨但小房發出之票二十五兩五兩一百兩五百兩五百兩一千兩分爲五等各等紙色不同票數亦有層次易於分別今將二十五兩僞改造一千兩原是二十五兩之紙色亦是三十五兩之票數及背之百印僞改造不能玲瓏如諸君細看容易分出真僞今將小號發出之票開列於后如號數混亂各等紙色不對合背之白印糊混不清楚千萬不可收用免至受累望諸君謹慎細察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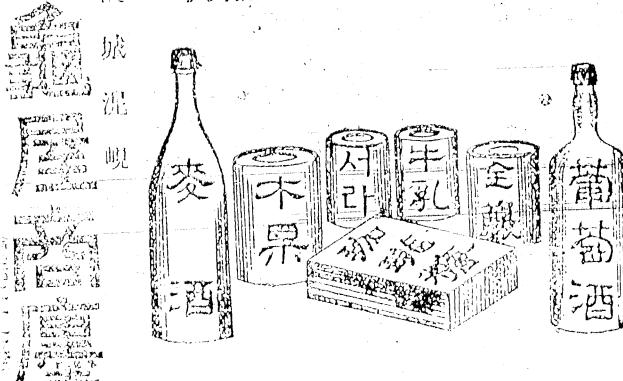
前將發出錢票五等號數次序開列於后

壹伍百兩 票票票票票
貳拾伍兩 票票票票票
壹仟兩 票票票票票
票票票票票
山山山山山
六六六六六
七七七七七
城城城城城
銅銅銅銅銅
帆帆帆帆帆
同同同同同
順順順順順
泰泰泰泰泰
廣廣廣廣廣
告告告告告

順
泰
慶

謹告
翠園
香滴々歡迎貴客
日本領事館
本國花樹之栽培呈保証書
花木栽培業好
本國誠意不妄收銀無二言
大勇強以廉價為慶范之請
植大化物廉價販賣

關下生物條件之研究



慶
群
支日日本有名志士新聞等諸君著述皆已付印矣
十卷之無料縹覽也請予此卷之印行日急矣
再十一月望是時乞勿以年序之故而更用某月
八時半至右隨道主辦此書之年有甚者乎哉
但月號曰皇休期
京城大學西國
十二月十三日

全羅北道金堤郡作安里柱外損廢脈恤
本就安昌郡作安里柱外損廢脈恤

一
三朝條五十錢
一年條一元七十錢

山影水聲記

△半新綠馬流水 桃花岡을過고 杜鵑
花溪를 越へ야 松城街道를 지나 가즈 遙看
牧場이 郊野를 遠지니 野頭一面에 浩々芳草
色이 嫩且 緑을 色似敷青毛布十疋。此
處에 馬幾群은 或嘶或走或飲水且楊柳一
群下에 馬幾十은 或臥或睡或喫綠이라 牧
場主人은 氣高昂心安閑을 不是神仙子

布畦出稼集 優選
라) 씨의 손으로 써 단하인번을 보니
보니는 님은 이왕에도 르차 대제호에
와데서 유라씨의 하인사오명이 군살하
일으켜서 일꾼을 모집하고 또 사수요령이
되는지 라나 간사 일례 경보호(慶報號)를
타고 일천으로 다리고 와서 일구는디 모집
혼다는 말이 있는데 대체 할 뜻이 심을 흐트려
국에서 후덕 혼다는 말을 듣고 떠나가고 싶었
어하는자니 만흔 저라포와 의서끼 일로 속초를
가미구에 찰이라 흐더라

南部臺灣坊第一百一零四戶草家九間空
十一零五戶金炳洙五家六間與草家五間
文芬一張音並以典當於長洞日本人石橋
舖頭當五文七千五百兩拿得出而陰居月
月初三自附此券二張音還推持來伊中路
無論向外國人中捨得錢員明有空付
是依紙船行支者有正中署貢善坊洞口
李學瑞至此券音送李君即厚恩德同
謂立此狀

上木建築業開始
今次에 본所을記하處所에創設
般務事業을擴充致到官之由小量與產
支用材料을擇定하여役事을迅速히 完成
役費을省減하니凡事을盡職하니
有志效君子亡來議于社子手續

此店開業以後是各處子弟的聚會所

日盛月昌支山不勝感謝至不勝言詞
三倍勵支外左記是日是薄利至那賣草

列印日光臨購去支
一紡績系 各種

廣蓄白水

自米忌餌往朝大韓外軍隊以糧食之
支吾止引此後豆列豆尋便利是爲主事

五十九以上을
오니 多々 購求
할지 當 約 乎

京城南大門通路
北洞林支店

星州居鄭周畿分前星姓李都守上都縣
支立避遼東巡檢支姓吾子人名謂之吾

獄十餘日是時醫部侍郎劉繼無罪放回至
延平府海田鄉間著片麻衣一束

舉人五六支。到勤遠狀齊古，已知其人，打聽大同某將軍，一子兩舉人，已許他為女婿。

條幅勸轉之。時人以別論內外，故不取。及後人見其

我當時還沒有讀過書，但這句話我記憶猶新。

磚洞閭叅判宅添璫氏贍州田主頃半秋
改開門後謂田主更予名吾子之子也

朝廷准淮西已亥庚子壬寅之年，以是月
是年十月分朔，遣失实，以示威。其时告

(電氣鐵道查辦委員報告)
說

諭官業改善

數日來至皇城報에掲載한電氣鐵道查辦委員의報告文案내에云호암스되宮內에

서殘給金額日貨百四十一萬元과銅貨

二十七萬元의消費가分明하니故로外

부에서大使에此照會를發하니蓋該會

社는昨年에幾回交涉한後에今既美人所

有에歸하았는是時에此照會가有하니

我儻는甚하查辦機會의失害을惜하노라

宮내에서發給한金額은不可不查明하니

한국에서主張하니自有道理나唯夫

하道자치吳落자라

美國人旗들임의揭露後에此主張이有하니

我儻는以爲韓國에官有事業을大抵這般

一樣으로以爲야結果하니敗局에歸하자는

上不渺惑자라力令官業을新設하니續次

設備할인하니만일도鴨綠江會社一樣意慢

하道자치吳落자라

俄國森林會社—俄歷四月一日

即本月十四日에俄國臨時代理公使須泰

仁氏가韓國外部大臣에派遣하니公文의

趣旨는千八百九十六年에鴨綠江沿岸地

伐木權利에關한俄國森林會社代辦으로

한스탈리男爵이漢城에駐劄함으로該男

爵이陞見官을要請하니該男爵은許

久間京城에槎寓하야俄國의事業家로內

布設權要求者로俄國代理公使가同氏의

名義을現하되今又森林會社代辦事務員

으로同男爵의名을通知하니斯로推測하

本來該會社는自今七年전에草貝氏가蛙

韓公使時에俄國친자계도代理奉리노氏

道宰氏가青木子爵을日本公館에訪問하

의名義로豆滿江畔과茂山森林과鬱陵島

山林을三十年間伐木하는權利를得하거

個年으로爲支고鴨綠江方面에五年으로

爲支야本年三月에着手하는期限이다

然而該會社가約立以來로其翌年に到으

로茂山森林을採伐하니幾何材木을豆滿

江에輸送하니鬱陵島와鴨綠江森林에

는조ooks도着手한事が無하니今日에至하

廷에輸送하니無흐줄도이일듯하다

同호자라須秦仁氏代理公使가獨하문스

이우노爵은代辦人으로通知하니스와韓

廷에서何等相關이無흐줄도이일듯하다

此로써俄國이서로鴨綠江伐木事業을

시작하였다는是와同호자라

廷에서何等相關이無흐줄도이일듯하다

예各國公使을歷訪하았다는데
外相訪問—再昨日午後에外部大臣李
人京支遣는 히 載 諸 聞 要 請 青 木 子 爵 이 東 方 漫 遊 次
韓 皇 隆 下 諸 敬 意 表 支
道 宰 氏 가 青 木 子 爵 을 日 本 公 館 에 訪 問 하

에 全 州 亂 民 이 蜂 起 喜 吳 朝 고 도 土 耳 古 潤 川
서另派支신 바 鎮撫使는 濟 經 委 亞 留 巴
亞人의 効驗이 無하니 맛查니 成功 치 吳

영주에 25일에 歡迎會를 排設하니
마니다

會 社 居 院 警 衛 院 에 서 각 道 에 訓 令 하

기 ullen沿海各郡에 加 沙 里 會 社를 本 院에付

属하니 取 稅 하니 차 다 달라

日 租 歡 運 會 前 外 務 大 臣 曹 本 周 戰 氏

가 來 韓 朝 을 為 하니 日 本 租 界 地 에 서 租 民

들 來 25일에 歡迎會를 排設하니
마니다

華 民 爭 市 水 原 報 를 據 하니 則 城 外 民 也

城 内 民 이 互 相 市 廉 移 設 器 競 争 하니 訓 令

使 에 하니 請 願 하니 25일에 俗 民 也

日 數 百 人 이 集 合 相 議 中 以 라 달라

라 달라

華 民 爭 市 竹 内 氏 訓 令

前 外 務 大 臣 曹 本 周 戰 氏

가 來 韓 朝 을 為 하니 日 本 租 界 地 에 서 租 民

들 來 25일에 歡迎會를 排設하니
마니다

華 民 爭 市 竹 内 氏 訓 令

前 外 務 大 臣 曹 本 周 戰 氏

가 來 韓 朝 을 為 하니 日 本 租 界 地 에 서 租 民

들 來 25일에 歡迎會를 排設하니
마니다

華 民 爭 市 竹 内 氏 訓 令

前 外 務 大 臣 曹 本 周 戰 氏

가 來 韓 朝 을 為 하니 日 本 租 界 地 에 서 租 民

들 來 25일에 歡迎會를 排設하니
마니다

華 民 爭 市 竹 内 氏 訓 令

前 外 務 大 臣 曹 本 周 戰 氏

가 來 韓 朝 을 為 하니 日 本 租 界 地 에 서 租 民

들 來 25일에 歡迎會를 排設하니
마니다

華 民 爭 市 竹 内 氏 訓 令

前 外 務 大 臣 曹 本 周 戰 氏

가 來 韓 朝 을 為 하니 日 本 租 界 地 에 서 租 民

들 來 25일에 歡迎會를 排設하니
마니다

華 民 爭 市 竹 内 氏 訓 令

前 外 務 大 臣 曹 本 周 戰 氏

가 來 韓 朝 을 為 하니 日 本 租 界 地 에 서 租 民

들 來 25일에 歡迎會를 排設하니
마니다

華 民 爭 市 竹 内 氏 訓 令

前 外 務 大 臣 曹 本 周 戰 氏

가 來 韓 朝 을 為 하니 日 本 租 界 地 에 서 租 民

들 來 25일에 歡迎會를 排設하니
마니다

華 民 爭 市 竹 内 氏 訓 令

前 外 務 大 臣 曹 本 周 戰 氏

가 來 韓 朝 을 為 하니 日 本 租 界 地 에 서 租 民

들 來 25일에 歡迎會를 排設하니
마니다

事業調查時代

韓國現態는調查時代에 在하되此調查時代로文明對等國을 模仿하야 實施에着手하니 韓國事業이中途에 跌跌하여 或事業이 成功하려도終局을 完全히 来지 못하거니此에 所以 하자라 文明國에서 鐵道를 建設하되 先豫測하踏査와 實測을 經て 後에 敷設하니 浮費를 查定하니其 支撥의途를 明白히 列하되 소掘코 쳐 署 진서 探險과 測定과 試掘을 施行하야 資本額이 確立하되 後에 由各國의 貨幣制度를 成立하되 소 진서單位復位의 調查와 經驗을 重視하야 其國情에適合하마를 撰擇하야 故에 비로 소貨制와 確立하니 韓國은 列國의 結果를 比較하니 其原因을 討究하니 其 調査는 忽諸列국이 底氣를 携하니 其 調査에 頗落하니 其 調査는 無益하니 其 調査에 不遑하지

聞說支那西北鐵道는 内藏院에 每年에 二十萬元을 支撥하니 대만幾十名의 徒軍을 駕卒이 始役하니 若夫 京義間鐵道敷設資本金은 二千万元으로 但定支면 二百年後에 支拂하니 소告成하니 如此則

自初至其始功을 不期而至하니 每年에 支拂하는 十萬元은 累計하니 若夫 京義間鐵道敷設資本金은 二千万元으로 但定支면 二

百年後에 支拂하니 소告成하니 如此則

자라니 更에 韓國의 矿山을 見하니 韓民들

이沙金을 拾集하니 但委祖支고 故其良礦을

을 开闢하니 但內地는 到處마다 洞穴이 空然하니 價値에 彙聚하니 是 憎財寶臺土

中에埋沒하는 것과 如하니 又今에 中央銀行이 資本을 設立하는 곳을 見하니 白銅貨

俄人의 申許를 给하니 白馬山城은内地

要도無하니 此意로 法公館으로 覆照하

坐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站

本人에 從孫金元培字順人이 가 移居慶南
豐基公니 본是敗子로 京卿出沒하니 漢浪
亂類를 答同하니 如干田皆 假造偷賣코
져 치오니 內外國人은 見欺後悔치며 차고
錢財問切勿舉論하사옵
楊州晝夜面虛洞居前司果金潤植 白告

慶尚北道青松金龍河口子秉鎬朴索性
浮浪雜技支家產奢蕩敗支正踪跡이因
忽支이勿論內外國人會立見欺債給支이
日後의其父明主再侵責치이各主서

全羅北道金堤郡守安學柱^가損廉賊^한
且捧榎綏督^하而^여尊^예聖興儒^교公廉終^정
吏^吏民^民以^이感服^{감복}至^지事^사至^지願^원留^류狀^상을^을內^내部^부의^의
等^등訴^소吏^吏而^이從^진進^진現^현者^자意^의로^로已^이往^왕
處^처分^분而^여置^자 다^다才^재士^사而^여退^퇴又^여다^다리



璧堂에서今般의新聞雜誌縱覽所를開設
す。日本有名之新聞雜誌多寡가何人
이든지無斜縱覽者許玄。但日曜日은午
前十一時로부터他二午后一時まで同一
八時半시까지隨意로縱覽。支시기。是璧堂玄。是
但月曜日은休場。

정부 철도 츠기타 유증 철매	경성 장동 목상 대
경성	좌
장동	동
목상	목
대	상
(밀화 일정 이십번)	
一 年 條 一 元 七 十 錢	一 期 條 一 千 錢
一 年 條 五 十 錢	一 期 條 九 十 錢
一 年 條 張 二 錢	一 期 條 六 百 錢
一 年 條 三 百 錢	一 期 條 三 百 錢

啟者小號發出之錢票經有數年諸君信用以至各市場坊巷流通今有無耻之徒將號三十五兩之票僞改造三千兩票私在市場坊巷兌換騙人良心盡喪累人害物甚爲痛恨但小号發出之票二十五兩五十兩一百兩五百兩五百兩一千兩分爲五等各等紙色不同號數亦有層次易於分別今將二十五兩僞改造一千兩原是二十五兩之紙色亦是三十五兩之號數及背之白印僞改造不能玲瓏如諸君細看容易分出真僞今將小號發出之票開列於后如號數混亂各等紙色不對合背之白印糊混不清楚千萬不可收用免至受累望諸君謹慎細察爲幸

前將發出錢票五等號數次序開列於后

貳拾伍兩	壹百兩	伍拾兩	仟兩	壹兩
票	票	票	票	票
山一號起至一千號止	山二號起至二萬一千號止	山三萬○○○○一號起至四萬一千號止	山四萬○○○○一號起至六萬一千號止	山六萬○○○○一號起至七萬一千號止
城銅峴華商同順泰廣告				

官報抄錄

◎第三年首先生六號(四月廿五日生)○
◎宮廷錄事○詔曰正二品朴箕陽特免
懲戒(四月二十三日)

○欽任及禹令
○陳紹興仁宗
樞院主事中鼎善(四月二十一日)△依願
免本官。慶尙北道觀察府摠巡李善淳△
任侍從院奉侍金錫勳特免懲戒正一品
侍從院奉侍金錫勳特免懲戒正一品
朴箕陽△任慶尙北道觀察府摠巡敘判任
官六等韓大源(以下四月二十一日)
○第三千四百零七號(四月廿七日月曜)
○宮廷錄事○奉天承運皇帝詔曰
朕惟氣化之所流轉而痘疹行是雖不見於
軒岐諸經而蕩滌人躬腑堅固人筋膚以柔
贊天地之生成者其功爲不少矣孝友之
天賦英邁百度夙就辰昏怡愉允矣孝友之
性游嬉文墨展也聰明之姿警華觴而稱廟
如禮隨銅闕而供歡無惱不煩師博儼若
成長朕念切止慈常所鍾要乃者適因達和
施表疹候太醫院以朕惟憂過度請率醫官
百官軍民同此欣慶有司奏晰庭攝脩在神
古猶丁內朝多謠謡等賴(神符月鑑神符)

念是自卽朕一歲入一著社之月若日也經平兩慶並湊一日天意之不偶然者較然明甚則王之者艾而熾昌長久而康寧其賴神祐可前見也茲於是日祇告郊廟社稷朕亦臨殿受賀以答景覲所有合行事宜據列于後一歷代帝王陵寢有毀壞者該觀察明具報于該部以爲修葺一攝鎮海濱本年三月二十七日凡在京大小各衙門及外觀察府尹郡守鎮衛隊將官並更替等如有貪賂肆行舞文枉法剝削小民者照律懲辦但有非常之功拔例施賞以明賞罰一民有鳏寡孤獨篤年廢疾窮無以爲養者若有司另加存恤無令失所要兒衛生尤不可忽所生在醫生加意調治以稱朕保赤子之至意一孝子節婦許所司保勘明白具實開報貞昭獎勸一如有廉潔公正質能幹濟之人或屈在下流或隱於山林許該官司以禮待遇隨時薦舉于該部以憑擢用一文薩武朝官七品以下各加一階一內外文薩武官因公誹謗免官者該部隨時奏免懲戒一謀叛強盜殺人通奸騙財竊盜六犯外各獎勵以示務本一詔內各欵該地方官俱要實心奉行務使恩澤及民以副朕御金元元之意於戲乍憂旋瘳喜氣溢於宮掖

卷之三

年六十三治明
日八廿月四
日曜火

同仁視汪澤軍於紜城布告天下咸便聞
知(光武七年陰曆三月二十七日)(未完)

日本獨創株式會社
鐵筋仁川製鐵廣告

本浦鑑門行
明月山人
大明時作

芝罘埠北旅順日本海

芝罘太沽牛貢行

本浦釜山門司神戸行

日暮郎船會社

瀛船出報廣告

本油馬關太陽行
一、癸卯九
四月
廿一年舊曆

鎮南浦保山行
五月四日午後四時

群山本蒲行
安寧號
四月廿八日午前入港

銀南浦萬景岱行

木浦釜山元山北關行

卷之三

卷之三

月白角鋸
耳有韻
因二兩相
遇
 여스니誰某拾得支外丘休紙施行支

本人即本名永商曾改正定烈女至同照亮曾伏皇喜

鐵兵馳也

義州發屯兵掠去。首領林七是
예聞人玄亞民財物掠去。首領林七은
鳳凰城列在玄亞。非。俄兵을結交。而
賊徒을指揮。玄亞。一團匪類가。家庄을
襲。玄亞。民兵의 逆擊을 被。玄亞。匪類가見
敗。玄亞。死者一人。名이。重傷者。十
餘名이。謂。精民의 避亂者。土漸多。玄亞
安東縣人心이。漸々。高지다。此時에。俄兵이
淸民을率。玄亞。自馬山森林을研伐。玄亞。匪
徒가。越江。玄亞。風。聞을傳播。玄亞。義州民

서생호는 민족 대립 관계가 있음으로俄公
使에게對한 악연格은 공爻을 發送한 악연
林事件에 関한 악교涉事件을 見한는 데 至
하라라하더라

起元氏外侍講院副詹中成健鍾氏亡雖二品이 오掌禮院相禮李範錫氏外弘文館待讀金鎮懿閔冰會二氏亡正三儒으로陞任이 되었더라

馬賊六十名이 安東縣으로闖入하고 民財를掠去하였다.
開額五十명이 雪塹庄을襲擊하고 있다가 兵을 遇하고 악敗를吃하여 匪徒死者 一十八명이
여 二十명은 捕虜가 되었다.
馬賊首領林某는 道今 凤凰城에 在하고 俄
兵이 謨保中이 놀라니라.

으로虛說일줄知吏몇다니茲에確聞호만
을는지以契約成立은眞說도該賴問員도近
日에來着호다호되姓名을求詳호나位
地는比國政府에서曾往에某國公使館
等書記官을徑由한者一叶호더라
龜手尙演說 青木子爵은昨日에京城大學
教育會에臨席호여教育問題呈演說호되

徵兵制編成，徵兵官制之督飭頒布，
設北洋師府，現今該將門共編成
中、英、法、德、俄、日六國軍隊。
奉天停車場，東清鐵道奉天停車場，
停車場即省城開辦之支那馬車捷運之處，
往來之處，昨年來至奉天城門外二里之處，
地號新停車場，建設迄在中、英、法、德、俄、日六國。

北
北
條
約

鴨綠江邊集林研倉

狀이擾亂을故로屯兵호다호나屯兵호즉
韓半島를威壓하는政策이오滿韓的實力
阻害支那行動이라韓의獨立를擁護하며
滿韓半朝舊土를張호는日本帝國이잇지忍

問題는 외부와俄清兩國公使間에 교渉中일 때 本社에서更探호마를 據支니 該森林研伐契約은 光武五年에當時 外部大臣과 俄國公使 巴禹路厚氏間에 合同이 된 였고 該條款은 光武五年吳廷爵甫五箇年에

禁中弛禁。昨日吳三桂門外弛禁已退。
아大少官吏가無得出入玄丘議官耳電話
王事가差出이된다니라。
白馬山問題。清人數十名이俄兵파遣
外白馬山城의材木을採伐支仗다는電報
州議副서울로故로韓國外部에서는平
리도氏間條約文中에鴨綠江沿岸이라
갖스나白馬山은鴨綠江下流의一支流自
馬河上流에在玄山城인特히國內의禁
山印故로設或俄國森林會社의條約이有
効이라玄丘도白馬山森林은其條約外에屬
이라호며又아모通告印시韓國領土에
俄兵이駐在함은森林保護라稱호나此에

問에開役本叫臣該條約推限은光武五年
으로부터二十年이었다.
韓德使來韓 新任駐韓德國公使선토령
氏方三時日에大連丸으로來韓하였다.
要請支였다.
新公使訪問 新任德國公使薩突蠶氏
는去二十五日에外部臺訪問하였다. 그일본
公使館을訪問하였다.
太祖頌德碑 太祖高皇帝頌德碑를建立하였다.
文文碑 太祖高皇帝頌德碑를建立하였다.

卷之三

卷之二

光武七年四月廿八日

光武七年四月廿八日

本人에 從孫金元培字順八이가 移居慶南
豐基려니本是敗子至京卿出沒^{지나다니}而浮浪南
亂類^질을^를符同^한야如干田省^한爲^되造偷賣^도
저^자오^노內外國人^을見欺後悔^치叶^시고
錢財問切勿舉論^한시^음
楊州^{양주}昼夜而虎洞居前司果金潤植^진白告

慶尙北道青松金龍河의子秉鎬자索性의
淳浪雜技支아家產을蕩敗하고踪跡을匿
忽호이勿論內外國人호우立見敗債給호우
日後호其父母호우川錢責치마음소서

도일부는 경주수호사
총장호제인호



상동
지전
연
복
광
卫

皇山山山山山
城六六萬萬萬號
銅○○○○○起
峩○○○○○至
商華千號號號號
同起起起起至二萬

順
千千千
號號號
泰
正正正
廣

啓者小號發出之錢票經有數年諸君信用以至各市坊巷流通今有無聊之徒將我號三十五兩之票僞改造二千兩票私在市場坊巷兌換騙人良心盡喪累人害物甚爲痛恨但小号發出之票三十五兩五十兩一百兩五百兩一千兩分爲五等各等紙色不同號數亦有層次易於分別今將二十五兩僞改造一千兩原是二十五兩之紙色亦是二十五兩之號數及背之白印僞改造不能玲瓏如諸君細看容易分出真僞今將小號發出之票開列於后如號數混亂各等紙色不對合背之白印糊混不淸楚千萬不可收用免至受累望諸君謹慎細察焉

廣告

漢書著輸山如番今件物當開市



樂堂에서 今般에 新聞雜誌縱覽所 設開設
すが日本有名な新聞雜誌等を多く併入
하는지無料縱覽을 허许する。即日曜日은 午前十一時より他 五午后一時로 부터 同
八時半까지隨意로 縱覽할 수 있음을 言及
하니 但月曜日은 休場이다。

三
年
條
一
元
七
十
錢

廣告 價
四號活字十七字一有回八錢
同三回以上七錢
同五回以上六錢

編民兵防國境之議

社説

我儕가 西境匪變이實은 可히測知 吳玄福
機가伏在 言을 聞고 機가 亂可히變勢가
既成 言을 悅하니라 是時에 西境防禦之術
을 講하마니 우緊急도다

西境國防軍은 亂에 在 言을 假入 言을 賦하
을 得하니 其禍害及 言을 亂에 諸兵가 大
리로다

俱是 國防軍이라 亂일 一고에 亂類가 外力
을 賴하니 西境을 假入 言을 賦하
을 得하니 其禍害及 言을 亂에 諸兵가 大
리로다

然하나 民兵編伍는 令을 發하니 西境
帶斗民이 一朝有事할 때에 臨하니 각자 不可
不兵器을執하니 言을 防境할 지라 政府는
武器를 輸하니 言을 防備政策을
立하니 言을 亂일 一고에 亂類가 外力
을 賴하니 西境을 假入 言을 賦하
을 得하니 其禍害及 言을 亂에 諸兵가 大
리로다

東西南北

△俄國東洋艦隊大演習 俄國太平洋艦

隊司令長官는 王子少將이 來月士日頃에
黃海附近에 航大演習을 舉行하기로 決定

야 금의 蔽幕及各將校에 命하니 演習準

備에 着手하니 支援이라 這回演習은 昨年

三萬噸内外로 黃海演習終了後는 北清沿

岸을一周하거나 南韓으로 向하豫定이라

에 對하니 韓國은 亂이 起한 後에 亂에

一部은 亂順으로 踏航하니 一部은 日本海

에 對하니 韓國은 亂이 起한 後에 亂에

對하니 韓國은 亂이 起한 後에 亂에

자勿忽다 警告하니 양다 디라

▲博覽開會式 本月二十日에 大坂博覽

會開會式을 舉行하니 天皇陛下에

오서 臨場하니 詔敕을 下하니 誓

將賜陛下 詔敕을 下하니 誓

故로 陰曆本月上旬에 痘神餽送이 尚未終

비로 全體見音賜하니 誓

鴨綠江岸問題 日本公使가 日淸韓三

會社로 合同 言야 森林採伐는 亂權利를 言

의 許認하니 更히 外部로 言할 許

伐와 均活을 言할 許求하고 俄國이 亂

保護의 名으로 以하야 兵員을 派遣하니

淸會社에서 亂을 言한 맛당이 保護兵을 言

音請하니 라디라

③俄館覆照 義州郡守外寧邊廳總辦事

告를 為하니 外部에서 俄館으로 言하는 俄

國兵丁이 安東縣에서 越江來義州里로 言

會하니 데니 俄館에서 該兵丁을 言은 江邊故

林을 保護하니 亂으로 言하는 亂

禹路厚氏가 離發하니 手既執弓矢

最近 輻道를 擔하니 再昨日에 巴兵가 日本

東京으로 到着하니 亂으로 亂生印來

韓하니 라디라

巴氏來京在遁 駐韓俄國全權公使巴

勢力을 言는者一切 하니 草兵을 永駐하니

②草兵果歸國 外權을 利用하니 自家

①俄公使館에서 視務한人 아오년 諸

中에 亂故가 有하故로 遷任하니 李鍾健氏
가署理를 被命하니 李氏가 家내에

服制가 有하니 解任하니 外部大臣李道宰

氏가 被命하니 라

隱然禁止 漢城電氣會社原帳簿을 查

拂氏가 遷任하니 손其時에 旣記이 있거니

와 日前에 陳本仁氏가 新任하니 來着하니

美公使가 尚今 轄持 支那結果 亂期限이 言

然하니 軒宮內에서 憶情이 有하니 電車

를 更乘하니 者는 旣民의 道니 아니라고

運動하니 驚然中禁止하니 라

⑤外語訓令 亂體式延期가 故로 外部

에 서는 三昨日에 各公使에 대對

호아 訓在本國政府에公然通知 訓

調令方 암다하니 라

⑥農相將赴日 農工商部大臣閔種默氏

는 今回에 日本博覽會로前往하니 酔定이

되였는지 大皇帝陛下에서 賞可 치침을

待하니 發程하니 라

⑦各使團持各廟社嚴宮基地를 二百五

十乘奚以下足作定支았는데도 各公使

承認치 아니하니 라

⑧觀覽員回京 曜日에 渡日淸博覽會觀

覽委員長金昇圭總務官閔載植鑑查官朴

城津電告 一城津에서 外部로 遠遣民電

音振高則十八洞과 仁川에서 四次列車로 上京하니 라

海岸埋立役事를 踏查하니 爲하니 再昨日

에 海關所屬櫻井丸을 乘하니 該港으로 前

往하니 라

⑨清領事着任 駐箚漢城淸國領事傳良

拂氏가 遷任하니 손其時에 旣記이 있거니

와 日前에 陳本仁氏가 新任하니 來着하니

로 晴公使가 韓政府呈聲明 言하니 라

⑩鐵路上役分擔 水原自南 二十餘里間

水經廣提調를 被命하니 라

柳萬氏는 景幸殿提調 오永錫 權相朴齊

賦氏는 宗廟署提調 오正三 景春韓氏는

永經廣提調를 被命하니 라

外去 二十三日에 市場營業 旣定設置되니

決定支門內派의 人 久拿鑑定 旣定되니

龜竹內兵登程 竹內總務員은 수일에 還

國하니 라

△韓廷外交官審使로 以하니 賞於功支正

耳文 附註 由 朝山人

審使로 以하니 失敗하니 此欽定第一兵

密使로 以하니 失敗하니 此欽定第一兵

旅順口에 往來하니 旣亦是亦

此際에 人의 予로 旣하니 旣亦是亦

此際에 人의 予로 旣하니 旣亦是亦

此際에 人의 予로 旣하니 旣亦是亦

對意光景이 라

可認種便郵

日十三月四年七武光漢城新報

(三) 第一千三百六十六號

山影水聲記

◎銅雀津碧流 漢水上遠自東方來호야
纏過松坡호이 山漸擴野漸豁이라 天門中
斷호고 銅雀津邊에 船流一緩 이라兩岸
에楊垂垂支고 中流에 船影闊이 어흘短艇
孤棹一順流下호이 明船歌聲隔江聞이라
深濕青衫者호이 携美女載綠酒호고 徒遊此
碧流호이 功名世念이 非難忘이라
兩餘芳草倍生光이라

◎芳艸生光 惜春客은莫恨風雨頻호라
佳節立호니 眼中無限景이라

◎一畔郊大 水登浦邊에 更上丘陵立호
片望裡西南青山遠이오 長堤廣野麥浪連
野菜花호이 黃白交호고 牛入耕郊上田호
니雲收凝烟霞호 風輕動春光이라 行人이
佳節立호니 眼中無限景이라

時에 軍浦場을 達호 엇스니 軍浦場은 永登

浦에 서百餘里 떠나 되지 않는 거라 該處에

서 青本子爵이 諸氏와 下車호야 泥濘參校

호고 附近觀望을 終호고 後에 洋料理와 麻酒

등으로 午發을 遊漁호 車中에서 草金閑

坐호 申談聲의 涌々호야 車窓外의 風雨를

아지 못호는 것 같다 라 午後零時四十五分

에 永登浦에 踏着호야 一時十七分發호

列車에 同客車를 挽호 야 談笑數話호

南太

門外驛에 到着호 엿더라

發卵季春隨武陵竹內翁巡視鐵道線

路抵振威驛遞上得二三無詩

濟車發的大門驛 蟻農生

出門好是還喧囂。有○忽々上鐵車。春○漢陽○

城外路。桃紅李白野人家。

道上口占

白鶯津頭柳似烟。永登浦上草。草。觀光偶及

歲南北恰好春風四月天。

填谷穿山奪鬼工。川道始築輒通。由來縮地

非無斂。從生。源指願中。

齒科部新設廣告

卷

李學璣告白

今般에 施婆松牙醫各色品類發售

但貧困者호 治療費施舍

牙醫各色品類發售

牙醫各色品類發售

牙醫各色品類發售

山口吳服店

南部薰陶坊第一百一季四戶草堂九間半

十一宗五戶金炳洙五家六間與草堂五間半

文旁一張魯並以典當於長洞且有大宅洞半

舖에當五文七千五百石屋

月初三日에 此券二張魯還賸時至

中路所遣失의 申起申如是皆全

是依紙施行令申起申中等皆善請洞內

學理家호此券書送委

申中路所遣失의 申起申如是皆全

是依紙施行令申起申中等皆善請洞內

山口日月星廉營

李學璣告白

南部薰陶坊第一百一季四戶草堂九間半

十一宗五戶金炳洙五家六間與草堂五間半

文旁一張魯並以典當於長洞且有大宅洞半

舖에當五文七千五百石屋

月初三日에 此券二張魯還賸時至

中路所遣失의 申起申如是皆全

是依紙施行令申起申中等皆善請洞內

學理家호此券書送委

申中路所遣失의 申起申如是皆全

是依紙施行令申起申中等皆善請洞內

山影水聲記

An illustration showing several items labeled in Korean characters. From left to right: a large building labeled '漢城泥峴' (Hanyang); a bottle labeled '麥酒' (Maekju); a cylindrical container labeled '木槧' (Mukdak); a box labeled '牛奶' (Milku); a box labeled '全' (Jeon); and a bottle labeled '韓國酒' (Hanokju). The background features a landscape with mountains and a river.

十二月十三日新聞雜誌縱覽所
但月曜日은休場
京城學堂附屬

廣告

啓者小號發出之錢票經有數年諸君信用以至各市場坊巷流通今有無恥之徒將我號字十五兩之票僞改造三千兩票私在市場坊巷兌換騙人良心喪盡人害物甚其後恨俱小号發出之票二十五兩五十兩一千兩分爲五等各等紙色不同易於分別今將二十五兩僞改造一千兩原是二十五兩之紙色亦是二十五兩之票數及昔之白印爲改造不能玲瓏細諸君細看客易分出實爲全有小號發出之票開列於后如號數扯亂各等紙色不對合皆之白印糊混不清楚千萬不可收用此至交累望諸君謹慎細察焉

廣告

上本建築業開始預告
今次付本所을 기록한處所에 制設하는 바
般上所出業을 優當히 되사에의해 小事을 用論
本付料金 應擇受이役費를 過原는 支拂
立本 有志 爰君子는 來議 支拂을 千萬伏
望

幣店
日盛月昌
倍翻支
紡績系
廣奉
韓苦白水
白米
支善
五十臥
莫
京城南大門
鐵路
長調
林支店

경부철도주권기타유증권매입
경성장동매입